

성 요셉의 7주일



DOLORES Y GOZOS DEL SEÑOR SAN JOSE

1



DESPOSADA SU MADRE MARIA, ANTES DE VIVIR JUNTOS
SE HALLO QUE HABIA CONCEBIDO DEL ESPIRITU SANTO" (Mt 1,18)

DOLORES Y GOZOS DEL SEÑOR SAN JOS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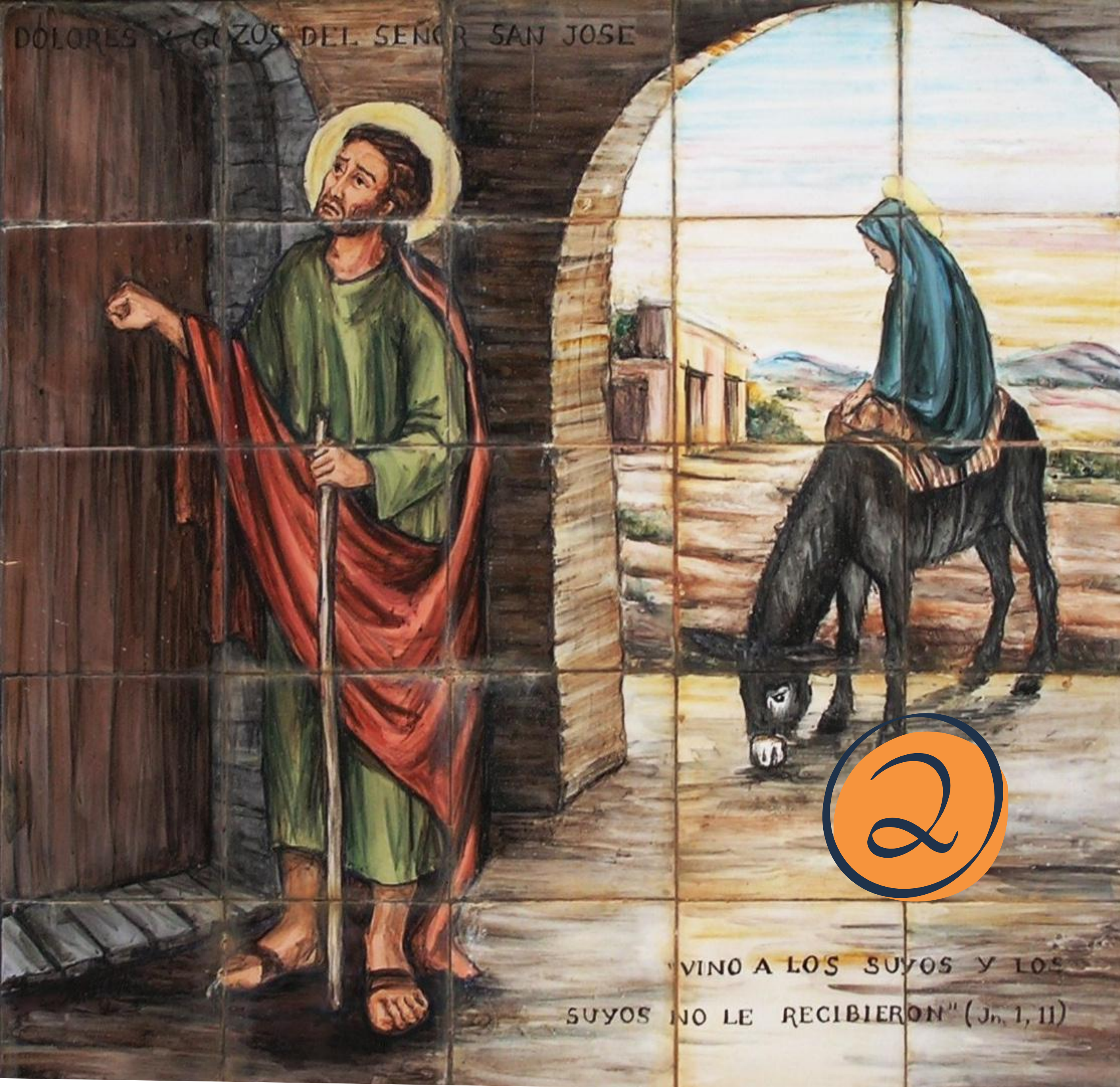
EL ANGEL DEL SEÑOR SE LE APARECIO EN SUEÑOS Y LE DIJO: JOSE HIJO DE DAVID NO
TEMAS RECIBIR A MARIA TV ESPOSA PUES LO CONCEBIDO EN ELLA ES DEL ESPIRITU SANTO" (Mt 1,20)

첫 번째 고통

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. (마태 1,18)

첫 번째 기쁨

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. “다윗의 자손 요셉아,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.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.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.” (마태 1, 20-21).



두 번째 고통

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
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
이지 않았다. (요한 1,11)

두 번째 기쁨

서둘러 가서, 마리아와
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
찾아냈다. (루카
2,16).

3



세 번째 고통

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.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 준 이름이었다. (루카 2,21).

세 번째 기쁨

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
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.
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
서 구원하실 것이다.”
(마태 1,21).

4



네 번째 고통

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“보십시오,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,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.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,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.” (루카 2,34-35).

네 번째 기쁨

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
것입니다. 이는 당신께서 모
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
것으로 (루카 2,30-31).



"EL ANGEL DEL SEÑOR SE APARECIO EN SUEÑOS A JOSE Y LE DIJO: LEVANTATE, TOMA AL NIÑO Y A SU MADRE Y HUYE A EGIPTO, Y ESTATE ALLI HASTA QUE YO TE AVISE." (Mt 2, 13)



"Y ESTUVO ALLI HASTA LA MUERTE DE HERODES, PARA QUE SE CUMPLIERA LO QUE DICE EL SEÑOR POR EL PROFETA: "DE EGIPTO LLAME A MI HIJO" (Mt 2, 15)

다섯 번째 고통

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. “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,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.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.” (마태 2,13).

다섯 번째 기쁨

헤로데가 죽을 때까지
거기에 있었다. 주님께
서 예언자를 통하여, “내
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
서 불러내었다.” 하신 말
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
된 것이다.
(마태 2,15).

DOLORS Y GOZOS DEL SEÑOR SAN JOSE



"EL SE LEVANTÓ, TOMO AL NIÑO Y A SU MADRE Y ENTRO EN LA TIERRA DE ISRAEL, PERO AL OIR QUE ARQUELAO REINABA EN JUDEA, EN LUGAR DE SU PADRE HERODES, TEMIO IR ALLA" (MT 2, 22)

DOLORS Y GOZOS DEL SEÑOR SAN JOSE



"Y AVISADO EN SUEÑOS SE RETIRO A LA REGION DE GALILEA Y FUE A VIVIR EN UNA CIUDAD LLAMADA NAZARET: PARA QUE SE CUMPLIERA LO DICHO POR LOS PROFETAS, QUE SERIA LLAMADO NAZARENO" (MT 2, 22-23)

여섯 번째 고통

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.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,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.
(마태 2,21-22).

여섯 번째 기쁨

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
가서 자리를 잡았다. 이로써
예언자들을 통하여 “그는 나
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
다.”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
다. (마태 2,23).

DOLORES Y GOZOS DEL SEÑOR SAN JOSE



DOLORES Y GOZOS DEL SEÑOR SAN JOSE



일곱 번째 고통

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, 찾아내지 못하였다.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. (루카 2,41-42).

일곱 번째 기쁨

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
찾아냈는데, 그는 율법 교
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
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
묻기도 하고 있었다. (루카
2,46).

성 요셉의 일곱 가지 고통
과 기쁨을 묘사한 도자기는
토레시우다드 (스페인) 성
지에 있습니다.